

2012 대선 불안해소 프로젝트

“여성유권자, 대한민국의 불안을 말하다”





C

ONTENTS

05	조사결과 요약
08	불안 1. 일자리
10	불안 2. 폭력
12	불안 3. 금전
14	불안 4. 노후
16	불안 5. 자녀돌봄
18	불안 6. 교육
20	불안 7. 건강
22	불안 8. 정치사회
24	불안 9. 주거
26	불안 10. 기타
28	총평
29	조사개요
30	여성평등 8대과제
31	여성연합 소개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에서는 총·대선이 치러지는 2012년을 맞아, 대한민국 여성유권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키워드를 '불안'으로 설정했습니다. '불안'이라는 키워드는 여성연합 대선기획단의 아이디어를 통해 제시되었고, 여성연합 회원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합의된 것으로, 2012년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여성이라면 세대와 계층의 구분 없이 공감할 것이라는 폭넓은 지지와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2012 불안해소 프로젝트 "여성유권자 대한민국의 불안을 말하다"가 시작되었습니다. 전국에 뻗어있는 회원단체 활동가와 핵심회원들이 청취자가 되어 전국 1,000명의 여성유권자를 대상으로 '불안'과 그에 대한 '대안'을 청취하였습니다. 선거 시기 주로 상향식 정책제언 활동을 펼쳐온 여성연합이 불안해소 프로젝트를 통해 대중 속으로 들어간 데에는 전환기인 2012년, 대중여성의 욕구와 여성운동의 일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청취대상자 1,000명의 여성은 최대한 대한민국 여성유권자를 대변할 수 있도록 세대나 계층, 지역 등 다양하게 구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고용상태, 결혼상태, 자녀유무 등을 질문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에 담은 10대 불안은 총 941명의 여성유권자들의 불안을 분석한 것으로, 감히 이 조사결과가 대한민국 여성유권자 전체를 대변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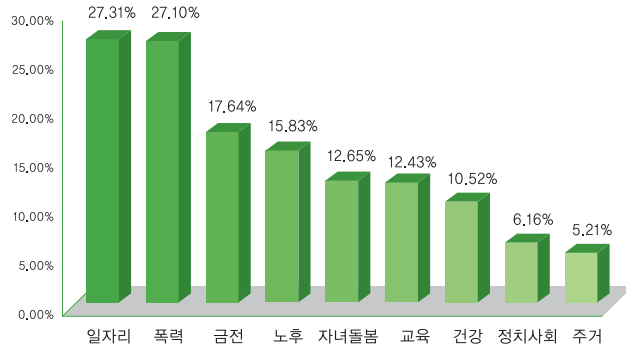
사례들은 청취대상자의 인터뷰 대화를 그대로 활용한 것으로, 다수의 여성유권자들이 공감한 사안 중 구체적이고 생생한 대화를 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여성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안 뿐 아니라 대안에 대한 아이디어도 함께 실었는데, 옳고 그름을 떠나 전문가가 아닌 일반여성들의 대안 아이디어 중 공감되고 재기발랄한 사례를 담았습니다. 결들여진 해당분야의 전문가 코멘트를 통해 사례 중심의 구성이 자칫 놓칠 수 있는 분석을 담았습니다.

가볍지만 동시에 무거운 내용입니다. 이 조사결과가 대선이라는 중요한 국면전환을 앞둔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를 좀 더 성평등한 사회로 변화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2년 12월,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한민국 여성유권자 불안 1위 '일자리' 2위 '폭력'



전국의 여성유권자 941명으로부터 불안을 청취한 결과, 대한민국 여성들은 '일자리'와 '폭력'에 대한 불안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941명의 응답자 중 257명(27.3%)이 취업걱정과 고용불안,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등 '일자리'에 대한 불안을 1순위로 꼽았으며, 255명(27.1%)이 성폭력, 묻지마 범죄 등으로부터의 안전 등 '폭력'에 대한 불안을 두번째로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직접적인 경제적 곤란에 대한 불안인 '금전'과 '노후'에 대한 불안이 각각 3위(166명)와 4위(149명)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자녀돌봄'에 대한 불안이 5위(120명), '교육'에 대한 불안이 6위(117명), '건강'에 대한 불안이 8위(99명)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치사회'에 대한 불안이 8위(59명) '주거'에 대한 불안이 9위(49명)로 나타났는데, 특히 '정치사회'와 관련한 불안은 청취시기가 대선을 앞둔 10월 진행된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 조사는 중복응답을 허용하고 있어, 전체 941명으로부터 1,418개의 불안을 청취한 데 따른 것이다.

10대 '폭력' 20대 '일자리' 30대 '자녀돌봄' 40대 '교육' 50~60대 '건강' 70대 '정치사회' 가장 불안

전체 응답자 941명 중 10대는 74명(7.7%), 20대는 166명(17.5%), 30대는 234명(24.7%), 40대는 324명(34.5%), 50대는 107명(11.2%), 60대는 27명(2.7%), 70대는 14명(1.3%)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0대는 '폭력'과 '일자리'를 20대는 '일자리'와 '주거'를 30대는 '자녀돌봄'과 '주거'를, 40대는 '교육'과 '노후'를 50대는 '노후'와 '건강'을, 60대는 '정치사회'와 '건강'을, 70대는 '정치사회'와 '건강'을 가장 불안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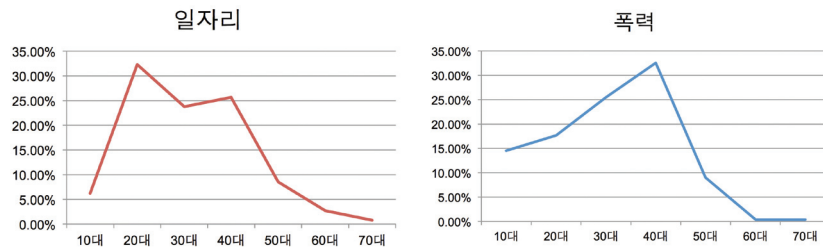
연령	불안 순서
10대	폭력 > 일자리 > 금전 > 교육 > 정치사회 > 건강
20대	일자리 > 주거 > 자녀돌봄 > 폭력 > 정치사회 > 금전 > 건강 > 노후 > 교육
30대	자녀돌봄 > 주거 > 교육 > 금전 > 폭력 > 정치사회 > 일자리 > 건강 > 노후
40대	교육 > 노후 > 금전 > 자녀돌봄 > 건강 > 정치사회 > 폭력 > 주거 > 일자리
50대	노후 > 건강 > 정치사회 > 주거 > 금전 > 폭력 > 일자리 > 자녀돌봄 > 교육
60대	건강 > 정치사회 > 주거 > 일자리 > 노후 > 금전 > 교육 > 폭력
70대	정치사회 > 건강 > 금전 > 노후 > 자녀돌봄 > 일자리 > 폭력

여성의 생애주기별 특징을 나타내는 불안

경력단절 M-커브현상, 일자리 불안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

각각의 불안요소들을 세대별로 분석한 결과, 여성의 생애주기별 특징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순위를 차지한 '일자리' 불안은 세대와 계층 구분 없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세대별로 분석한 결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서 나타나는 M-커브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 놀라웠다.



'폭력' 불안은 10대부터 서서히 그 비율이 증가하여 아동청소년기인 자녀를 기르는 40대까지 증가하다가 급속도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외에, '자녀돌봄' 불안은 아이를 낳아 기르는 20대부터 시작되어 꾸준히 증가하다가 50대부터 급속도로 감소했다. '금전'불안과 '교육'불안은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40대에 집중되어 나타났다.

'노후' 불안은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대에서 호소하고 있었으며, '정치사회'불안과 '주거'불안은 전 세대에 걸쳐 고르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기혼여성 '교육' '자녀돌봄', 비혼여성 '일자리' '폭력' 자녀가 있는 여성 '교육', 자녀가 없는 여성 '일자리' 가장 불안

결혼상태와 자녀유무에 따른 불안은 흥미롭게도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결혼상태에 있고 자녀가 있는 응답자는 '교육', '자녀돌봄', '노후', '건강' 순으로 불안을 호소했고, 결혼상태가 아니라고 답한 응답자와 자녀가 없는 응답자는 '일자리', '폭력', '정치사회', '금전' 순으로 불안을 호소했다.

결혼상태	불안 순서
O	일자리 > 폭력 > 주거 > 정치사회 > 금전 > 노후 > 건강 > 자녀돌봄 > 교육
X	교육 > 자녀돌봄 > 건강 > 노후 > 금전 > 정치사회 > 주거 > 폭력 > 일자리

결혼상태	불안 순서
O	일자리 > 주거 > 폭력 > 정치사회 > 금전 > 노후 > 건강 > 자녀돌봄 > 교육
X	교육 > 자녀돌봄 > 노후 > 건강 > 금전 > 주거 > 정치사회 > 폭력 > 일자리



일자리와 고용불안



- 곧 졸업을 앞두고 있어 일자리에 대한 걱정이 제일 많아요, 특히 임금이 성별에 따라 다르기도 해서 불안해요
- 우선 취업이 계속 안 되는 데에서 오는 불안이 가장 커요. 작년 말에 이직을 결심하고 일을 그만뒀는데 그 이후에 고용됐던 회사들이 최저임금은 고사하고 하루 12시간가량 일을 시키면서도 인간적인 예의조차 지키지 않았어요. 서류 합격조차 너무나 어려워요. 돈은 떨어져 가고, 일 구하기는 어렵고, 거기에서 오는 두려움이 제일 큼니다.
- 저는 비정규직으로만 7개월, 5개월 띄엄띄엄 일하는 워킹맘인데요, 비정규직이라서 정규직만큼 혜택도 없고 월급도 작고 그거에 비해 일하는 양은 정규직 못까지 하니깐 너무 억울한 생각도 들고 하소연할 때도 없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렇다고 세금을 안내는 것도 아니고 복지혜택도 많이 누리지 못하는 것 같네요.
- 나한테 맞는 일자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자들은 결혼하면 회사에서 눈치도 많이 보여요. 육아휴직도 솔직히 맘대로 쓸 수도 없구요. 임신할 때 눈치 보이는 게 현실이거든요. 큰 회사는 그런 혜택도 잘 보장되지만 작은 곳은 보장이 잘 안되니까 처음부터 취직할 때 눈높이가 높아지는 거 같아요.
- 제가 시간강사인데요. 매년 계약을 할 때마다 힘들어요. 능력에 따라 재계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하는 분과의 관계가 계약을 결정하기도 하거든요. 시간강사이다보니 강의하는 데 있어 강사의 자율권도 침해받고 다른 강사들과의 경쟁도 치열합니다. 임용시험의 경쟁률은 높고... 비정규직자들의 인권은 어디서 찾아야 하나요?
- 저는 계약직인데요.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안되면 어쩌나 불안해요.
- 60살이 돼도 계속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요. 경력단절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고, 그나마도 죄다 저임금 일자리 뿐이에요. 최저임금을 최소한 200만원까지 올려야 하는 것 아니가요?



- 짧은 기간 진짜 직무를 체험할 수 있는 제도가 학교와 학과등과 연계하여 설치되면 좋겠어요.
- 국가에서 육아지원을 잘해줬음 좋겠어요. 일반회사는 육아지원도 없고 있더라도 쓸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법적으로는 보장돼있다고 하는 것 같지만요.
- 공공립 어린이집 많이 생겼으면 좋겠구요. 육아휴직을 3년 했으면 좋겠어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도 없어졌으면 합니다.
- 계약직이라도 좋으니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면 좋겠어요. 정규직이 되는 건 하늘에 별따기니까 계약직이지만 정년이 보장되어서 한 군데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으면 좋겠고 노후 준비할수 있도록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년이 연장되면 좋겠어요.
- 노인과 장애인에게는 맞춤형 일자리 마련이 필요해요.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과 장애인들이 하루 서너시간 정도 일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가 생겼으면 합니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프레임 전쟁은 선거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다. '유연한 노동시장 vs. 경직적인 노동시장'의 프레임에 너무 오랫동안 갇혀있었다. '고용안정 vs. 고용불안'의 대비가 올바른 것이었는데... 유연한 노동시장이 일자리의 갇수를 늘리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기업의 주장을 똑같이 읊어대던 정부와 언론은 이제 낫을 들고 뭐라고 말할지 궁금하다. 고용불안과 저임금이라는 짐을 노동자들이 온전히 짊어졌건만, 그렇다고 청년들에게는 어떤 기회가 더 열렸는가?

언제나 취업이 될지, 지금 하는 일자리를 취업했다고 말해야할지, 이번 계약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이 될지... 이러면서 사는데, 요즘 청년들 눈높이가 너무 높다는 꾸지람(?)까지 들어야한다. 아이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면 이게 과연 ভাল 선택인지 두렵고, 그냥 다니면 죄짓는 건 아닌지 불안하다. 자녀취업걱정, 남평퇴직걱정 하는 사람은 그나마 괜찮은 팔자라고 해야 하나? 정말 더 일할 수 있는데, 나이 들었다고 내치지고 먹고 살 걱정해야하는 노년의 돌봄노동자들에 비하면... 일자리는 모든 이들을 한꺼번에 불안상태로 몰아넣는 진원지가 되고 있다. 경제적 독립과 안정 없이 불안한 상태에서 미래를 설계한다는 것이 도무지 가당키나 한가?

시장이 법과 인권을 밟고 올라앉아 있는 비정상을 바로잡아야한다. 고용은 정규직으로 하는 것이 기본이다. 최저임금과 노동3권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실업자의 기본 생계를 보장하고 필요한 훈련과 취업알선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다.



여성폭력과 안전불안



- 뉴스를 보면 애들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많잖아요. 특히 여자아이들 성폭력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딸을 키우고 있고, 나도 여자니까 겁이 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죠.
- 성폭력과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이 미흡해요. 수사 과정이나 주변 환경에서 받는 2차 피해가 심각해요. 범죄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 아무래도 요즘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깐 내가 언제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요. 그렇다고 내가 거기에 대해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도 없을 것 같고 해서 막막한 느낌이 있어요.
- 딸을 키우다 보니 불안하죠. 학교에 이상한 사람도 많이 다닌다고 하고, 맘 편히 다닐 수도 없고. 초등학교 2-3학년까지는 엄마들이 데리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 집에서도 납치가 된다는데, 이제 정말 무서워서 택배도 못 받았어요
- 맞벌이를 하다 보니 학교 후의 아이들이 걱정이에요. 혹시나 하는 생각에 우리 아이는 안전하게 잘 있을까 하는 생각에 항상 마음이 불안해요. 아동성폭력 뉴스가 매일같이 나오니 직장을 그만둘까 싶기도 하구요.
- 과일 팔던 인상 좋은 아저씨가 성범죄자로 돌변하고 인심 좋고 친절하던 학원버스 운전 아저씨가 아동 성폭력자로 돌변하는 세상이잖아요. 현실이 불안하죠. 학교가 3-4분 거리인데도 아침마다 애들 학교까지 데려다줘야되는 현실이 참.. 씁쓸한 것 같아요.
- 딸을 둔 엄마로서 딸이 걱정이에요. 요즘 분위기가 그렇다보니 더 그렇죠. 치안문제가 불안하고, 딸도 딸이지만 나도 나이가 들어도 불안해요. 심지어 흰한 대낮에도 무서우니 남자들은 다 무섭게만 느껴지니 큰일이예요.



- 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자식이나 내 부인이 소유물이라는 생각이 그런 폭력을 불러오는 게 아니겠어요? 대대적인 캠페인 그리고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정류장을 좀 더 밝게 해 주면 좋겠어요. 상가 주변이 아닌 곳은 어두워요.
-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았으면 합니다.
- 성폭력 피해자의 지원을 확대하고 신고제를 폐지하는 등 피해자의 관점에서 정책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 성폭력,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묵인한 단체나 기관에게 처벌하는 법(제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학교, 기관의 명예 때문에 덮어버린다고 하니까요.
- 치안강화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 사회가 더욱 관심을 기울이며 자존감을 높여 줄 수 있는 교육이나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어떨까요?



이윤상 전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연일 언론을 오르내리는 성폭력 범죄 소식에 여성들은 불안하다. 이 불안은 여성과 아이들의 시간과 공간을 제약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가해자에 대한 분노를 끝없이 키운다.

수 십 년 동안 현장에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일해 온 경험에 의하면, 언론에 보도되는 것과는 달리 가해자는 대부분 피해자의 가까운 지인들이다. 아동성폭력 가해자의 50% 이상이 친인척이며, 성인 피해 상담의 1/3 이상은 직장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입은 피해다. 대부분의 성폭력이 가정, 학교, 직장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자신의 힘을 남용할 수 있는 약자에게 행사된다는 뜻이다.

언론의 관심을 받는 사건은 세간의 관심을 끌 만한 요소가 있는 것 뿐이다. 언론의 관심 밖에 있는 성폭력 사건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사화되는 사건으로 인한 불안은 어쩌면 실체가 왜곡된 것일 수도 있다.

가해자에 대한 엄벌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런 와중에도 수많은 가해자들은 “서로 사귀는 사이라던데, 여자가 싫다는 말을 안했다던데, 술에 취해 한번 실수한 거라던데”라는 구실로 엄벌을 피해가고 있다. 언론에서 관심을 갖지 않는 수많은 피해자들은, 피해를 알리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기 때문에, 신고를 포기한 채 폭력에 노출된 삶을 지속한다.

안전한 사회는 피해자가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회를 믿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럴 때에만 일부 특정 가해자가 아니라, 폭력을 일삼는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처벌받고 반성하는 사회가 가능할 것이다.

금전 및 경제불안



불안 경제(금전)

- 돈 때문에 불안해요. 저는 현재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데 등록금이 너무 비싸요. 생활비도 아르바이트로 벌어서 쓰고 있는데 휴학하고 한 3개월 일해야 한 학기 등록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나마 자취하는 친구들은 생활비 때문에 모으지도 못하거든요.
- 당장 먹고사는 것을 해결하기에 급급한 상황입니다.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번 돈으로 살아가기가 힘든 상황이니깐요. 미래가 불투명하고,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가질 수 없어요. 결혼 할 생각이 없는 건 아니지만 결혼에 대해서도 자신이 없는 상태예요.
- 안전한 출산과 보육과 관련하여 경제적 비용이 고민입니다. 어린아이들조차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경쟁과 비교가 일상이예요. 부모의 경제력이 아이들 관계에서도 경쟁을 유발하는 이 환경이 출산을 두렵게 합니다.
- 저는 여성가장이니까 아이들을 키우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요. 이혼할 때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혼자서 이날까지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점점 힘에 부치고 어려워요. 남들 다 시키는 과외는 고사하고 기본적으로 참고서 사줄 돈이나 교복비 마련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죠.
- 요즘 5만원 가지고 장보러 가도 바구니에 담기는 게 없어요. 물가가 너무 올라 한 끼 식사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만만치가 않다니까요.
-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적성에 안 맞는 직장을 다니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이 직장을 다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앞으로 적성에 맞는 다른 직업을 찾고 싶는데 쉽지가 않거든요. 이직을 하고 싶어도 이직을 준비하는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싶고요.
- 지금은 남편에게 의지해서 살고 있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게 내거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도 연금 때문에 못한다는 말은 우리 친구들끼리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다니까요. 내 노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걱정이지요. 여성으로서 경제적인 독립이 가능할지 뭐 그런 거요.

해결 경제(금전)

- 경제 양극화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 일자리를 줄이고 정년은 늘리고, 정년을 늘리는 대신 임금상한제를 두는 거죠.
-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이야말로 경제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대책이 아닐까요?
- 경제문제는... 글썄요. 대통령이 바뀌면 나아지려나? 그런 기대는 크게 하지 않아요. 대통령되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뭐 그냥 제가 아끼고 사는 수 밖에.... 적은 급여 열심히 모아서 악착같이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겠죠.
-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요.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더 불황인데 복지급여는 전보다 줄었어요. 기초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복지급여가 현실화되었을 좋겠어요. 마치 자기 돈 주는 것처럼 매번 잔소리하는 사회 복지 담당 공무원들 태도도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 요즘 회자되고 있는 기본소득을 국가에서 지급했으면 좋겠네요 생존에 꼭 필요한 부분에 걱정을 덜 수 있게요



권태선 한겨레신문 편집국장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주거비, 교육비, 생계비 등 생존의 기본적 조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여성들은 남성보다 더 취약한 일자리, 양육과 교육, 고물가에 대해 민감하게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불안이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결혼과 관련해서는 무조건 장려만 할 것이 아니라 미혼 여성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할 듯하다. 미혼 여성의 경우 결혼하고 싶어도 경제적인 문제로 못하고 있으며 결혼이 취업에 대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불안으로 느끼고 있다. 여성일자리 증대와 여성소득 증대를 위한 전략 마련이 절실하다.

기혼 여성들은 교육, 물가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이는 경제불안과 더불어 사교육비의 증대가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준다. 국공립 보육시설, 육아와 돌봄교실, 전업주부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단시간 보육 등의 확대와 공교육의 활성화로 사교육의 근절을 요구하고 있는 것 역시 이를 방증한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기혼과 미혼여성들은 공통적으로 강력한 보편적 복지국가 실현, 실질적인 최저생계의 보장, 공교육의 확대 정책, 양극화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개인에게 모든 짐을 지우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으로는 이런 불안감을 타개하기 불가능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복지 영역에 있어서 국가 역할을 확대하는 한편 사회 공공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이윤창출에만 급급한 사교육 대신 공교육이 제 자리를 찾게 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며,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공동체적 가치를 구현하는 새로운 공유경제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노후불안



- 벌여놓은 돈도 없고 비혼이라 자식들도 없어 노후가 불안합니다.
- 주소득자인 남편이 정년퇴직(그때까지 갈 수 있을지도 불안)한 후에 소득이 확 줄어들텐데, 그걸 생각하면 저축을 해놔야 하는데 당장은 주택관련 빚도 있고, 기타 이런 저런 비용에 쓰느라 충분히 저축을 하고 있지 못해 불안하죠.
- 노후에 경제적으로나 심리·문화적으로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을지 불안해요.
- 자식들 공부시키느라 노후준비를 못했어요.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안정적이지 못해 불안하죠. 그래서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는 일하고 싶어요.
- 노후대책이 없죠. 옛날에 먹고 살기 바빠서 이일 저일 하다 보니 국민연금도 없고요. 정식직장에 다닌 사람이나 국민연금이 있지, 저는 지금 직장 와서 7년 난 국민연금이 전부예요. 주위에 보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또래 사람들이나 윗 연배들도 전부다 비슷해요. 국민연금이 없다보니 노후대책이 없어서 고민이죠. 그렇다고 자식들한테 손 내밀 수 있나요? 자식들도 먹고살기 바쁜데...
- 라디오 들으니까 국민연금이 고갈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보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국민연금이 유일한 노후대책인데 고갈위기라고 하니 계속 내야하는지 말아야하는지 불안하죠. 나이가 들으니 보험 들어 주는 데도 없고 비싸서 들 수도 없어요.
- 노후에 생계가 불안해요. 건강하지 않을 경우, 65세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어떻게 생계유지를 할 수 있을지, 일자리는 있을지, 질병으로 인해 더욱 빈곤해지지 않을지 불안해요.
- 직장인으로 현재 노후 대책 미흡하고 부모님의 노후까지 책임져야하는 부담이 너무 커서 불안합니다.



- 노령인구가 늘어나고 인간수명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태어나 20년은 부모의 도움으로 살고 그 다음 20년은 경제활동으로 산다고 해도 나머지 40년은 빈손으로 사는 현재의 구조를 개선해야 되요. 자녀보육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서 노후를 개인이 준비할 수 있든지, 아니면 보육은 개인이 책임지더라도 노후는 국가가 책임을 지든지 말이죠.
- 유럽 선진국에서는 노인들이 그 사회의 주 소비층을 이루고 있다잖아요. 전 국민이 노후연금을 통한 소득보장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 돈 많이 내지 않아도 갈 수 있는 질 좋은 실버타운이나 요양병원, 노인공동체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 노인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이나 조합을 고민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 제대로 된 노령연금제도가 생겼음 좋겠어요. 노인들에게는 무료건강검진을 받게 해준다든지 임대주택 입주자격 조건을 완화해준다든지 말이죠.



주은선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여성들의 노후 불안이 삶의 핵심 불안 요소 중 하나이며, 연금제도를 비롯한 공공복지 확대 요구와 지지가 광범위하다. 노후 불안은 전업주부건, 일하는 여성이건, 또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가리지 않는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불안감은 마찬가지이다. 노후 불안의 핵심은 노후빈곤, 즉 소득보장에 대한 불안감이다. '치매 걸려 내동댕이쳐지면 어찌지?' 등 치매를 포함한 건강문제 역시 반복되고 있다.

불안의 맥락에는 여성에게 더욱 가혹한 나쁜 노동시장이 있다. 일하는 여성(노인) 다수가 저임금이고, 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배우자의 고용에 대한 불안감도 존재한다. 현 소득 대부분을 자녀교육, 주택관련 빚 갚기 등에 투입하여 노후대비가 불가능하다.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부실함, 즉 현 연금수급자도 적은 연금액으로 살기에 빠듯하고, 자녀가 있을 때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공공부조의 급여제한을 겪고 있다.

여성들은 국가 주도의 복지 확대를 주요대책으로 꼽았다. 많은 여성들이 보편적 중세를 지지한다거나 부자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워야한다는 등 공공복지 확대 열망에 적극적이다. 가장 중요하게 언급된 제도는 연금제도이며, 최저생계비 보장 등 소득보장이 국가의 의무라는 인식이 광범위하다. 그 뒤를 이어 정년 연장, 노인일자리 확대와 의료보장 확충이 언급되며, 일부는 좀 더 큰 틀에서의 교육제도, 노동시장제도, 정치 변화(대통령 잘 뽑기), 사회 투명성 제고, 과감한 부의 재분배 등을 언급하고 있다.

일부 여성들은 아예 '대책이 없다'라고 답하여 현실의 무력감, 답답함에 놀려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국가복지 확대를 통한 노후보장이 한국여성의 강력한 소망임이 확인되었다. 여성들은 자신의 노후보장을 위해서는 배우자나 자녀가 아닌 개별 시민으로서 일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기여하고 보장받는 것이 절실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자녀돌봄과 일가정양립불안



-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벌써부터 아이 낳아 키우는 것이 걱정이에요. 회사가 출산휴가, 육아휴직도 맘대로 쓸 수 없는 분위기라 아이를 낳으면 일을 그만둬야 하는 건지, 그럼 무슨 돈으로 아이를 키울지, 일을 계속 할 수 있다 해도 일하는 동안 애는 어디다 맡겨야 할지 걱정이지요.
- 현재 아이 맡길 데가 마땅치가 않아요. 일을 하면서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하루하루 전쟁이거든요. 그나마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는 시간도 정해져있어서 야근이라도 할 상황이 생기면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아니니, 돈 벌어서 양육비로 다 쓰는 꼴이지요.
- 아이들을 마음 놓고 보낼 수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시설이 부족, 보통 대기자들이 40~50명이라 정작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는 직장맘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유치원시설은 구에 몇 개 되지 않는 실정이지요.
- 맞벌이 부부여서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올 시간에 집에 도착하지 못하면, 아이가 사고가 날까봐 불안하죠.
- 아들이 있는데 인터넷중독이 심해요. 밤낮으로 인터넷 게임에 빠져 사니 정말 걱정이고 불안해요.
- 자녀들의 취업이 걱정이지요. 요즘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대학을 나와도 제대로 하고 싶은 일을 못할까봐 걱정되요. 아이들이 독립을 해서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진로나, 취업, 결혼이 예전처럼 쉽지 않으니, 애들이 다 컸는데도 걱정이 끊이질 않네요.
- 다 큰 딸이 하나 있는데, 결혼을 하고 싶어하지 않아서 걱정이에요. 마음 같아서는 혼자 살라고도 하고 싶은데, 우리 사회 자체가 여성이 혼자 벌어서 혼자 살 수 있는 여건이 안되잖아요. 결혼 안한 여성들을 보는 사회적 인식도 별로 안 좋고요. 어서 결혼할 생각을 해야할텐데 그게 걱정이에요.



- 공립어린이집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유급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도 연장해야해요. 남편 출산휴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5일인데 너무 짧아요.
- 어린이집이 끝나고 엄마가 직장을 마칠 때까지 맡아줄 방과후 어린이집을 국립이나 공립으로 많이 만들어줬음 좋겠어요.
- 보육료지원 계층을 확대해주세요. 지금 같은 기준으로는 형편이 어려워 둘 다 벌어야 생계유지가 되는 맞벌이 부부들이 오히려 배제되거든요.
-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공동육아가 가능하도록 마을공동체가 살아나고 이 공동체의 운영을 국가가 지원해주면 어떨까요?
- 엄마가 양육과 가사를 전담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사회분위기 때문에 여성의 사회적 역량이 희생되는 것 같아요. 양육은 부모 모두의 몫이자, 사회의 공동책임으로 인식이 변화되었으면 합니다.



백선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자녀돌봄에 대한 여성들의 답변은 매우 광범위하다. 맡길 곳이 없다는 문제에서부터 교육 문제, 아동성범죄 문제, 왕따 등 학교폭력 문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이 토로되었다.

일하는 여성들은 육아에 불안을 느낀다. 맞벌이 가구 먼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부터, 이용시간이 노동시간에 비해 짧고, 보육서비스의 질이 더 높아야 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비용부담에 대한 어려움을 지적한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 무상보육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이용비용에 대해 부담을 갖는다니, 보육서비스 전반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때인 것 같다.

자녀돌봄과 보육과 관련된 여성들의 대안은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사회불평등의 완화, 사회변혁, 일자리 창출, 정치체제 개편 등 거시환경과 관련된 것들부터, 공교육정책(학교 정책의 변화), 장애여성을 위한 지원, 토요프로그램의 다양화, 사회안전, 경력단절 여성지원 프로그램, 야근 없애기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제시된다.

육아/보육과 관련해서는 육아휴직, 직장보육시설, 방과후어린이집, 어린이집 이용시간 증대, 학교차원의 돌봄교실 확대, 철저한 관리감독,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질 함양에 대한 요구,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서비스 질 등 매우 구체적인 제안을 한다. 여성들의 경험에서, 여성들이 제안한 대안들을, 여성들의 주체적 참여로, 구체적인 문제해결까지 이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성들의 불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보자.



교육불안



- 아이들 교육문제가 제일 불안해요. 사교육도 너무 많이 시켜야 하고, 또 사교육 시켜서 학교 졸업시켜 놓는다고 해서 자리 잡는다는 보장도 없고, 아이들의 미래가 불안하니, 이것저것 많이 시키고 있는데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 자녀가 중, 고등학생일 때는 학교폭력이 걱정이었어요. 학교에서 왕따 당하지 않을지, 돈을 요구받지는 않을지, 그리고 교사들에게 체벌을 받지는 않을지 때문이에요. 이제 대학생이 되면 대학 등록금 부담이 걱정이죠.
- 아이들 교내 폭력, 교육 관련 문제. 학원비 및 지나친 조기 교육 및 영어교육 열풍 등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 걱정입니다.
- 아들이 고3인데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을지 그게 너무 걱정이예요.
- 아이들의 교육이 불안해요. 아이가 공부를 못해서 왕따를 당할까봐 불안해요. 하위권 성적의 학생은 철저히 선생님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다는데, 공부만 못하지 나쁜 애가 아닌데, 무관심 때문에 탈선을 하는 등 아이들이 쉽게 엉뚱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학교가 성적 위주로 돌아가니 걱정이죠.
- 누가 사대주의라 그러건 말건 돈만 있으면 이민가고 싶을 지경입니다. 우리나라는 공부 잘하는 애들 위주로 교육을 하다 보니, 다른 재능이 있는데 공부는 좀 못하는 애들은 설 자리가 없더라고요. 공부 못하는 우리 애는 친구들한테가 아니라 선생님한테 왕따를 당하고 있단니까요.
- 중·고등학교도 무상급식이었으면 좋겠어요. 운영비나 학비도 좀 줄어들고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하고, 의무교육인만큼 학비도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국가에서 책임져주면 좋겠어요.
- 놀 시간이 없고 오직 공부와 성적에만 매달리고 있는 아이들이 불쌍해요.

School



- 무엇보다 공교육이 중심이 되어야하고, 이 공교육이 정상화되어야 사교육비가 절감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녀에 대한 교육은 무조건 학교 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주었으면 좋겠어요.
- 공교육에 있어 영, 수에 편중된 교육을 벗어나 인간성교육, 인생에 필요한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가까운 곳에서 공부가 아닌 아이 재능에 맞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었음 좋겠어요.
- 아이들에게 스스로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는데 우리 교육이 그런 식으로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부와 성적중심에서 벗어나서 말이죠.
- 교육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입시위주가 아니라 행복한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말이죠.



안승문 교육희망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사회구조적으로 남편에 비해 자녀를 돌보아야 할 책임을 더 지고 있는 이 땅의 여성들은 자녀 교육으로 인한 부담과 불확실성을 큰 불안으로 느끼고 있었다. 초·중학생 엄마들은 대부분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힘들어 하면서도 사교육을 시켜서라도 대학을 보낸다고 미래가 보장되지는 않는 현실을 불안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중학교 이하의 아이를 가진 엄마들은 교통사고, (성)폭력 따돌림, 컴퓨터나 TV 중독 문제 등으로 불안해하고 있었다. 반면, 고교나 대학생 자녀를 둔 엄마들은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도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학비 부담을 지목했다. 자주 변하는 교육정책을 불안 요인으로 지적하는 여성도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담과 불안의 해소책은 무엇일까? 대부분의 여성들이 갈망하는 것은 공교육만으로도 충분한 교육이 되면 좋겠다는 것이다. 점수따기 교육을 없애고 서열화하지 않는 교육, 입시교육이 아닌 즐거운 배움과 다양한 체험활동 중심의 교육을 해결책으로 제안했다. 아울러, 고교 무상교육과 대학의 반값 등록금 등을 불안 해소책으로 제안하였다.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아이들에게 꿈을 갖게 할 수 있도록 교육, 아이들 스스로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교육을 하자는 제안이었다. 나아가, 초·중·고등학생들에게는 놀이 문화를, 중·고등 학생들은 체육문화 활동을, 고교생에게는 한 달 정도의 봉사하는 체험을 시키자는 제안도 있었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공동체 문화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제안까지 수준 높은 교육정책 대안이 제안되기도 했다.

상당수 여성들은 경쟁교육을 줄이고 대학까지 않아도 살만 한 사회를 만들자거나,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모든 사람이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를 변화시키자, 고소득 자영업자들과 육체노동자들의 임금 격차를 최소화하자 등 보편적인 복지의 실현이 본질적인 불안 해소책이라는 수준 높은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건강불안



불안 건강

- 부모님 건강이 걱정이예요. 부모님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당장 어려우니...
- 요새 주위에 암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나도 혹시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어쩌나 불안하죠.
- 맥 없이 아플까봐 걱정이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일을 해야 하는데 건강해야만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건강이 가장 큰 걱정이고 불안이지요.
- 다치면 큰 돈 들까봐 그게 늘 불안하죠. 의료도 민영화된다는... MRI같은 건 보험도 안되요. 얼마나 비싼지, 남편도 그렇고 나도 필요한 검사를 못 받은 게 있어요. 의료보험만으로도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음 좋겠어요.
- 지금은 건강하니까 괜찮은데 혹 무슨 사고라도 나거나 중풍, 치매에 걸리면 누가 나를 돌봐줄지 걱정입니다. 둘째아들이 자기집으로 오라고 하는데 쉽게 갈수도 없고, 혼자 건강하게 살다가 딱 죽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 나이가 드니까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건강이 제일 걱정입니다. 더구나 자식들이 모두 직장에 다니는 통에 손주들까지 내가 봐야하는데 힘들어 죽겠어요
- 애기가 어린 데 아토피로 고생하고 있어요. 애기를 볼 때마다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을지, 또 이 애가 잘 크도록 내가 건강할 수 있을지 그게 불안하죠. 갑자기 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날까봐요.
- 치과치료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임플란트 같은 건 보험도 안되잖아요? 충치치료만해도 아말감 같은 거나 보험이 되는데, 요즘 누가 아말감으로 해요.



해결 건강

- 의료보험 하나만으로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 치과치료도 의료보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 노인연금도 실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걸 뭐 과자값 하라는 건지.
- 사적으로 온전히 해결하기 부담스러운 육아, 교육, 질병, 사고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복지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일반 서민이 입원하는 6인용 병실에 상주 간병인을 두는 제도는 어떨까요?
- 무료 건강검진을 확대했음 좋겠어요.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고문

여성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은 노후 건강에 대한 막연한 걱정부터, 환경오염이나 성폭력, 절망 폭력 등 위험사회에 대한 실질적인 공포, 가족들의 의료비에 대한 구체적인 불안 등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가족 돌봄의 주 담당자로서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광범위하고 다양하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 불안에 대한 대안으로 여성들은 운동하기, 안전한 밥상, 아껴 쓰고 절약하기, 암보험 가입하기 등 개인적 노력을 하고 있으며, 여성을 위한 예방접종이나 주기적인 건강검진의 시행뿐 아니라, 치과치료도 완전 의료보험 적용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사회안전망, 노인복지 확대, 복지에산의 효율적 사용 등 국가의 복지정책이 필요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성도 연금의 임의가입이 필요하다거나, 중장년 여성들도 일하는 만큼 받을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가 있었으면 한다는 제안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들이 노후 소득보장이 절박함을 파악할 수 있다.

여성의 건강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여성들은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아주는 건강보험 확대 정책과 여성 노후 소득보장을 포함하여 강력한 복지국가 정책을 제시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대선 후보를 선택해야할 것이다.



정치사회불안



- 서민이 죽어나고 있습니다. 중간계층이 없는 거죠. 없는 사람들은 가난이 대물림되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자기를 뱃속만 채우고 있습니다. 나는 살만큼 살았지만 앞으로의 세대가 걱정이예요. 특히 물질만능주의 세대 속에 살고 있는 요즘 아이들의 부족한 인성을 보면서 앞으로 그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게 될지 생각하면 불안합니다.
- 가스비, 교육비, 공공요금이 너무 올라 절망스럽습니다. 버스전차비가 올라서 한달 5만원 했던 교통비도 이제는 7~8만원씩 나오니 월급만 빼고 죄다 오르는 것 같아요.
- 우리나라 미래가 불안하네요. 안 그래도 제 인생 하나도 막막한데 우리나라 미래도 마치 제 앞날처럼 그저 새끼말고 끝이 안 보이는 터널 같아요. 친일파 매국노에 독재자의 딸이 대선에 출마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인 것 같아요. 그것도 모르고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나와야 한다는 여성대통령만이 쇠신의 길이라고 헛소리하는 국민들이 아직도 많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여전히 매국노가 땡땡거리며 잘 사는 이 나라 미래가 불안하죠.
- 비정규직, 저출산, 자살율 1위라잖아요? 노령층 인구가 많아지고, 특히 독거노인들이 많아지는데 노인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 불안해요.
- 다문화 2세들의 사회진출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요. 정말 문제입니다.
- 민주주의가 후퇴되어 다시 공안국가가 되면 어떻게 살 것인지 불안해요.
- 요즘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는 분노에 휩싸여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해요.
- 권력집단에서 계속 경쟁사회를 부추기는 것이 불안해요. 내 아이가 대한민국 1%가 되어야 한다는 꿈을 모두가 꾸고 있는데, 문제는 그게 다 돈 많이 벌어야 한다는 경제적 측면에서만이라는 거죠. 요즘 어린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고 대답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쓸쓸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 상생과 평화의 교육이 영어 수학보다 많은 비중으로 수업시간을 차지하면 될까요? 산업사회 구조에서 진행되어온 획일화·대량화 교육을 근절하고 인간의 다양한 성향을 살피는 교육이 가정, 학교를 중심으로 이뤄진다면 어떨까요?
- 일단 이번 대통령 선거에 반드시 투표하려고 해요. 주변 분들에게도 이번에는 꼭 투표하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권에 대해 교육을 했음 좋겠어요. 서로에 대한 존중, 배려에 대한 개념이 잡힌다면 서로가 느끼는 불안에 대한 것들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민주적 가치가 살아있는 사회구현,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게 많은 사회, 긍정의 힘이 뒷받침되는 사회, 물질만능에서 벗어나 가치 있는 삶이 인정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9시 뉴스는 주로 사건 사고 위주인데 매일 교육이랑 나눔가치 실현코너 등이 있으면 어떨까요?



안병진 경희사이버대학교 미국학과 교수

과거 정치에 대한 분노와 혐오감이 정치리더의 비전과 캠페인 방식에 따라서는 매우 폭발적인 정치적 행동주의로 이어질 잠재성을 보여준다. 아마 이명박 대통령과 박원순 시장 등을 거치면서 정치 참여의 소중함을 자신들의 정치적 경험을 통해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각성은 박근혜 후보의 집권에 대한 불안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나는데, 그녀가 유신시절의 인물이라서 라기보다는 여성들이 자신들 삶의 불안을 해소하고 행복을 담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에 기인한 것으로 야권 정치인들의 이념적 접근과 차이가 있다.

‘부자되세요’ 시대정신을 표방했던 이명박 시대에 대한 성찰을 통한 대안적 삶에 대한 갈망들이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특히 교육, 비정규직, 복지 등에서 대안적 삶의 가능성을 꿈꾸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 경쟁주의에서 도태되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 및 현실의 고단함 사이에서의 곤혹스러움을 호소하는 보통사람들의 고민 역시 잘 드러나 있다. 대안적 삶을 꿈꾸는 동시에 현실의 고단함을 호소하는 한국여성들은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통령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이러한 대안적 삶은 일자리, 복지 등 물질주의적인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포스트 물질주의의 대안에 대한 광범위한 관심이다. 이는 새로운 시대가치가 과거 대선과 달리 본격 이슈화되는 것을 잘 보여준다. 여성들이 사용하고 있는 보람된 일, 즐거움, 안전, 행복, 상생 등의 단어들은 여성주의적 생활정치적 가능성을 잘 보여준다.



주거불안



- 학자금 대출받은 것 다 갚고, 내 집 마련까지 얼마나 걸릴지. 아득합니다.
- 집 문제죠. 전세, 월세가 너무 비싸서 대학을 졸업하고도 독립을 할 수가 없어요.
- 집을 구해서 독립하고 싶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하루하루 먹고살기도 너무 힘들어요. 월세방 하나 구할 수 없는데 미래를 생각하면 갑갑하죠.
- 월세를 살고 있는데, 매달 월세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아까워요. 그렇다고 전세집을 구하자니 웬만하면 억대니 꿈도 못 꾸죠. 집 걱정만 덜어도 불안함이 없을 것 같아요. 내 한 몸 누일 집만 있어도 당장 실질을 하더라도 아무래도 걱정이 없으니까요.
- 경기침체인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와 원금을 갚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 지금 이사한지 얼마 안됐는데 벌써부터 2년 후에 전세금, 월세가 얼마나 오를까 걱정입니다. 박근혜 후보가 새로운 전세정책을 발표했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집주인이 미쳤다고 대출을 내서 전세를 놓겠어요?
- 집 주인이 계약기간이 다 되었다고 갑자기 보증금을 2천만원 올려달라고 하는데 갑자기 2천만원이라는 큰 돈이 어디서 나오나요? 이사를 나가야하는데 전세집을 못구하고 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전세 나온 게 없어요. 대출을 더 받아 집을 사거나 월세로라도 집을 구해야할 상황입니다.
- 전세는 점점 없어지고, 집주인들이 월세만 선호하니 걱정이죠. 1인 가구는 더 늘어나는 추세인데 1인 가구를 위한 저렴한 전세가 없으니 말이죠.
- 하우스푸어가 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러다 평생 대출금만 갚다 끝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건설했으면 좋겠어요. 꼭 분양을 받거나 매입을 하지 않아도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내 집 말이죠.
-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폭탄을 때려야 합니다.
- 정부에서 초저리로 대출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유럽에서는 성년이 되면 청년독립자금을 얼마씩 주는데 우리도 것처럼 청년들이 독립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줬으면 좋겠어요.
- 미혼여성이 살 수 있는 저렴하고 안전한 아파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월세 20만원 정도로 말이죠. 집이 해결되면 월급이 불안해도 몇 달은 버틸 수 있으니까 저 같은 비정규직 프리랜서들도 안심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 임대주택이 싸게 보급되어야 합니다. 임대주택도 너무 비싸요.
- 35세 미만 비혼자들에게도 전세자금 대출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 신혼부부를 위한 저금리 임대주택이 필요합니다.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대부분의 여성들은 내집을 장만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일부 집을 장만한 여성들은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부채문제를 걱정하고 있다. 그 해결대책으로는 정부의 정책 등을 기대하지 않고 직장이 안정되어 꾸준한 소득이 보장되어 부채를 변제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설문에 응한 30~40대 여성들은 크게 내집장만을 기대하며 집값안정을 걱정하는 그룹과 전세값과 월세를 걱정하는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후자가 소득이 낮은 여성그룹으로 보인다. 저소득층 30~40대 여성들은 전세값과 월세의 안정을 걱정하고 있고 문제해결의 대안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으로 뚜렷하게 모아지고 있다.

내집마련을 기대하고 있는 30~40대 여성들은 개인적인 문제해결보다는 정부의 대책으로 집값이 하락 내지 안정되어 내집마련의 기회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대책에 대해서는 세금폭탄, 부동산거품 제거 등 대안이 막연하고 상당수는 정부대책으로는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다. 대통령선거로 정권이 바뀌어야 한다거나 공동체에서 공동노력 등 정치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한편 자녀교육에 대한 불안을 함께 토로하는데, 자녀교육으로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거나 대학에 들어간 자녀의 경우 대학기숙사 비용 등이 많을 들어가므로 사교육비 억제나 대학기숙사비 인하 등의 대안도 같이 요구하고 있다.

20대후반 30대초반의 미혼여성들은 미혼여성들의 특성을 고려한 1인가구용 주택 공급이 늘어나기를 기대하고 있고, 독립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신용대출로 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소수의견 ‘말말말’



- 불투명한 미래가 불안합니다.
- 나이가 드니까 주변으로부터 결혼에 대한 압박이 있어요. 결혼을 꼭 해야하는 것인지, 하게된다면 아이를 꼭 낳아야하는지, 또래와 다르게 살고 있다 보니 자발적 비혼인데도 불구하고 불안한 게 있죠.
- 옆집을 경계하고 택배 아저씨를 경계해야 할 정도로 이웃 간에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게 씁쓸해요.
- 아이만 키우며 살다보니 자기 계발이 없다는 게 불안해요.
- 이주여성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주여성들이 남편과 나이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실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심한 경우는 남편은 예순이 넘었는데 여자는 스무살인 경우도 있어요. 남편이 먼저 죽으면 한국에 가족도 없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어서 살아가기가 막막한 상황이 되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외국인이라 무시하는 거야 말할 수도 없는 수준이구요. 한국사회가 결혼이주여성들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불안한 것 같아요.
- 딸들이 불안해요. 요즘 여자들은 일은 일대로 하고, 애키우고 신랑 건사하는 것은 그것대로 해야하고, 거기다 성폭행이니 뭐니 세상도 점점 무서워지잖아요. 딸들의 인생을 생각하면 불안하죠.
- 누출된 방산능 때문에 가족들이 아프진 않을까 불안해요.
- 가족 간의 대화와 소통이 단절되는 것이 걱정이죠.
-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학교폭력이 걱정입니다.
- 미혼모 자녀들은 늘어나는데 지원시설이 적다고 해요. 제가 사는 부산도 2군데 있다고 들었어요. 외국에서는 미혼모 자녀라 하더라도 사회가 따뜻한 시선으로 수용한다는 데 말이죠.
- 너무 바쁘게 살다보니 무언가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제대로 살고 있는 건지 두려워요. 무엇을 위해 사나, 어디로 가고 있나 본질적인 불안이 있는 것 같아요.



- 인문학에 대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 전 국민이 인권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서로에 대한 존중, 배려에 대한 개념이 잡힌다면 서로가 느끼는 불안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 직장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향상되긴 했지만, 주말 프로그램 시간을 늘리고 여러 분야로 배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결혼에 대한 부담감을 없애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었음 좋겠어요. 경제적인 문제일수도 있고, 육아문제나 심리상담이 될 수도 있겠죠.
-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평화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 환경에 대해 모두가 관심을 가져 원자력 발전소를 최소화하고 조금씩 덜 깨끗하고 덜 깔끔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 탈핵 대통령을 뽑아 대안에너지를 생산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이 불행하게 살고 있어요. 중개업소를 통한 국제결혼인 경우, 중개업소에 대해 국가가 철저히 관리하고, 남편에 대한 정보(질병, 장애유무, 결혼경력 등)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결혼이주여성들이 속아서 한국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 외국인 아내를 무시하는 남편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교육을 안 받는 남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영주권을 갖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해서는 투표권을 줘야하지 않을까요?
- 공동체 정신을 복원하고 협동조합으로 지역을 바꾸어야 합니다.
- 시민과 정치인의 의식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극심한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협력하는 이타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여성이 불안하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삶이 불안해지고 있다. 세계가 불안하고 한국사회가 불안하다. 살림살이를 담당하면서, 한편 사회경제적 지위가 취약하기에 여성들은 불안에 더 민감한 모습을 보였다.

불안 청취를 통해 놀라웠던 점은 OECD 10위권의 경제수준을 가졌다는 한국에서 많은 여성들이 60, 70년대나 했던 생존권 걱정을 한다는 점이었다. 여성들은 보육/교육비, 생활비, 주거비, 의료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여성가장의 경우 그 어려움은 더욱 컸다.

조사결과 여성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불안은 '일자리'와 '폭력'이었다. 취업도 잘 안되고, 된다고 해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비정규직이거나 임금에서 차별받는다. 결혼한 여성들에 대한 직장 내 차별과 육아와 노동을 병행하기 어려운 현실은 경력단절로 이어진다. 과일 팔던 인상 좋은 아저씨가 성범죄자로 돌변할지 모르는, 그래서 언제라도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현실은 '안전'에 대한 총체적 점검을 요구하고 있다. '일자리, 일생활 양립, 여성폭력문제'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성차별이 여전하며, 여성폭력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미흡함을 알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생활은 물론 노후를 위해 공통적으로 공공복지 확대를 주문하고 있다. 응답자들 역시 이 점에서는 같았다. 보편복지국가를 위해 국가의 역할을 높일 것을 주문함과 동시에 아주 구체적인 정책까지 대안으로 내놓고 있었다.

그러나 비정규직노동자가 대부분인 여성들은 기존 사회보장의 혜택에서 빗겨있다. 따라서 공공복지의 사각지대 해소와 여성의 노동권 보장 등이 필요하다. 비혼, 이혼, 사별 등으로 여성가장이 될 경우 삶의 불안이 급증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배우자나 자녀의 신분인 아닌 개별 시민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기여하고 보장받는 시스템으로 나갈 필요가 있겠다.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높고 여성문제는 해결되었다"는 말은 현실에서는 옳지 않았다. 대한민국 공동체에서 특히 더 불안을 느끼는 여성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국가가 아닐까.

이번 조사는 2012 대선을 맞아 한국여성단체연합의 7개 지부와 28개 회원단체는 물론 강원여성연대, 인천여성연대, 충북여성연대 등 협력단체들이 공동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조사기간은 9/28~10/30 33일간 진행하였으며, 활동가 및 핵심회원들이 인터뷰어가 되어 전국의 여성유권자 941명으로부터 불안과 대안을 청취한 결과를 분석한 것입니다. 통계 분석에는 여성연합 회원이신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공주 연구원이 애써 주셨습니다.

※ 응답자 941명의 특징

- 세 대 별 : 10대 73명(7.7%), 20대 165명(17.5%), 30대 233명(24.7%), 40대 325명(34.5%), 50대 106명(11.2%), 60대 26명(2.7%), 70대 13명(1.3%)
- 결혼상태 : 유 (63.7%), 무(36.2%)
- 자녀유무 : 유 (61.2%), 무(36.9%), 무응답(1.8%)
- 고용상태 : 정규직 (25.5%), 비정규직(24.1%), 자영업(6.1%), 무직 및 전업주부(31.5%), 학생(12.6%)
- 거주지역 : 수도권 (38.4%), 비수도권 (61.5%)

여성연합 지부

경기여성단체연합 | 경남여성단체연합 |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 대전여성단체연합 | 부산여성단체연합 | 전북여성단체연합

여성연합 회원단체

경남여성회 | 기독교여민회 | 대구여성회 | 대전여민회 | 부산성폭력상담소 | 부산여성사회교육원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 새움터 | 수원여성회 | 여성사회교육원 |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 울산여성회 | 제주여민회 | 제주여성인권연대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천안여성회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포항여성회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국여성노동자회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여성연구소 | 한국여성의전화 | 한국여성장애인연합 | 한국여신학자협의회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함께하는주부모임

협력단체

강원여성연대 | 인천여성연대 | 충북여성연대



차기 대통령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성평등 8대 과제

※ 2012년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여성연합에서는 대한민국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의 팍팍한 삶을 개선하고, 우리 사회를 보다 더 성평등한 국가로 만들기 위해 절실한 8대 과제를 제시합니다. 여성연합이 마련한 성평등 8대 과제는 각 대선후보 캠프에 전달되었습니다.

- ▣ 남녀임금격차를 OECD 평균수준으로 축소
- ▣ 여성폭력근절 국가행동계획 수립
- ▣ 국공립 어린이집 · 병원 · 요양시설 30% 확충 및 '사회서비스지원센터' 설치
-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해소 및 경제적 자립 지원
- ▣ 여성부 강화 및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 ▣ 사회경제적 사유의 임신중절 허용
- ▣ 정치/사법/통일 · 평화분야 남녀동수 참여 보장
- ▣ 비정규직 출산휴가 확대 및 '아버지 영아휴가제' 도입

여성연합, 알게되면 사랑하게 됩니다.

당신의 오늘은 '안녕'한가요?

밤 길 불안하시죠?

일하면서 아이 키우기 힘드시죠?

팍팍하고 불안한 인생

마음에 걱정이 있다면

풀리지 않는 분노가 있다면

여성연합과 함께 하세요.

여성연합과 여러분이 만나면

한 걸음씩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하고 평화롭게 바꾸어갈

고민과 활동이 여성연합에게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연합에게는
변화를 함께 만들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월 1만원 여성연합 후원회원 가입,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여성인권보험' 드세요.
나와 우리의 삶이 '안녕'할 수 있어요.

여성연합 후원계좌

- 국민은행 347-25-0007-108
- 우리은행 064-131858-13-108
- 농협은행(구 농협중앙회) 001-01-326751